

대항해 시대 유럽 열강의 향신료 무역에 관한 경제사적 함의

심 중 석* · 김 호**

〈국문초록〉

본고는 대항해 시대로부터 비롯된 향신료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거시적 시각에서 오늘날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정책적 무역 기조에 적의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대항해 시대에 건주어 오늘날 세계무역의 판도는 선진기술확보와 자원입국의 기치 아래 외견상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질은 보호무역주의를 국가적 정책에 두고 있는 경향이 짙다. 자원과 기술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향신료와 같이 어느 일방의 독점이나 지배만으로는 경제적 실질을 담보할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보완 및 또는 결합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로부터 그 실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혼합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무역환경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유럽 열강의 치열한 각축전을 초래한 동인으로서 기능한 무역로와 향신료에 대한 지배권 쟁탈은 오늘날 소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적 이익 보존 차원을 넘어서 자원과 기술의 시의적절한 융합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가 외교의 목적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국가 정책적 기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대항해 시대, 향신료 무역, 국제무역,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 주저자, 대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cyrus@daegu.ac.kr)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법학박사(hufsho@kmu.ac.kr)

차 례

I. 머리말	IV. 대항해 시대와 향신료 무역의 경제사적 의의와 평가
II. 대항해 시대의 개요와 역사적 의의	1. 대항해 시대에 관하여
1. 대항해 시대의 개요	2. 향신료 무역에 관하여
2. 대항해 시대의 역사적 의의	V. 맺음말
III. 향신료 무역의 배경과 경과	
1. 향신료 무역의 배경	
2. 향신료 무역의 경과	

I. 머리말

주지하듯 비단길(Silk Road)은 동·서양을 잇는 횡단 축으로서 다양한 교역 물품이 이동하는 대륙 간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문물과 문화가 유통되는 거대한 교통망(traffic network)으로 기능했다. 곧 비단길은 유럽에서 시작하여 중·근동(Middle·Near East)을 거쳐 동아시아(East Asia)에 이르기까지 총길이 6,400km에 달하는 인류문명의 진전을 촉진하는 이블테면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¹⁾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유럽 열강이 이른바 대항해 시대(age of discovery)를 통해 개척한 해양무역로에 비하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나 무역 규모 면에서 외연이 현저히 적고 좁았다.²⁾ 이러한 양상은 이후로 선박건조기술의 발달과 항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는데³⁾ 그 결과 비단길로부터 비롯된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의 특수에 편승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했던 중·근동 국가에

1) Likun Ai, Juzhi Hou, Haichao Xie, Yanbo Yu, and Fahu Chen, "Association for Trans-Eurasia Exchange and Silk-Road Civilization Development," *EGU General Assembly 2023, Vienna, Austria, April 24-28, 2023*, EGU23-5233 (2023).

2) P. C. Mancall, "The Age of Discovery,"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26, No.1 (1998), pp.26-53.

3) G. V. Scammell, "European Seamanship in the Great Age of Discovery," *The Mariner's Mirror*, Vol.68, No.4 (1982), pp.357-376.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적인 문화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 후유증을 남겼다.⁴⁾

모름지기 대항해 시대의 도래는 지역적으로 교착상태에 놓여있었던 대륙 간 무역의 외연을 넓혀 이로써 서로 다른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문화와 문명이 교류되면서 양자가 상호 순기능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시각에서 나아가 신대륙에 기반을 둔 서구권 국가의 직접적인 탄생과 이들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발판을 제공했다는 시각에서 역사적·경제사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 열강의 오랜 기간에 걸친 탐험과 개척의 결과로서 전 대륙의 영토와 문명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레 종막을 고했으나 그 뒤를 대륙 탐험 및 정복역사가 계승하면서 점차 제국주의로의 발전을 촉발하여 세계 각지에서의 빈번한 침략과 정복 그 밖에 경제적 착취 및 약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대항해 시대는 무엇보다도 향신료(spice)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 열강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⁵⁾ 당시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원양항해(ocean voyage)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조건에 두고 있었던 까닭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향신료를 확보하는 경우 막대한 이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유럽 열강은 이러한 난관을 자초하면서까지 대항해 시대에 편승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보였다. 이처럼 향신료는 대항해 시대의 빗장을 열게 한 결정적인 매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중세 말엽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이

4) Yakov Silin, Larisa Kapustina, Italo Trevisan, and Andrei Drevalov, "The Silk Road Economic Belt: Balance of Interests,"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Vol.6, No.3 (2018), pp.293-318; R. K. Mishra, "The 'Silk Road': Historical Perspectives and Modern Constructions," *Indian Historical Review*, Vol.47, No.1 (2020), pp.21-39.

5) N. L. Coletta, "The Spice Route: A History," *Food, Culture & Society*, Vol.11, No.1 (2008), pp.103-106.

른바 향신료 무역(spice trade)은 유럽 열강을 주축으로 국운을 건 경쟁을 촉발하였고 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로 대별 되는 각국의 무역 정책적 기조에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

요컨대 본고는 대항해 시대로부터 비롯된 향신료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이로부터 거시적 시각에서 오늘날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정책적 무역 기조에 적의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대항해 시대의 개요와 역사적 의의

1. 대항해 시대의 개요

대항해 시대는 앞서 본대로 유럽인이 선박건조기술 및 항해술을 발전시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 그 밖에 이에 부수하여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한다. 여기서 대항해 시대라는 명칭은 유럽의 역사관이 반영되었다는 시각에서 최근 이른바 신허로 개척 또는 지리상의 발견 그 밖에 지리 대발견 등과 같은 중립적인 명칭으로 치환되고 있는 차제에 있으나 대체로 그 주체가 유럽 열강이었다는 시각에서 현재까지 대항해 시대 그대로 널리 수용되어 불리고 있다.⁶⁾

대항해 시대의 동기는 크게 삼분할 수 있는데 곧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로부터 가로막힌 지중해(Mediterranean Sea) 항로를 대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종교적 동기, 유럽 역내 창궐했던 흑사병(Black Death)의 결과 봉건제의 와해로부터 비롯된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동기, 유럽의 향신료 수요 폭등에 따른 경제적 동기 등을 손꼽을 수 있다.⁷⁾

6) 김봉철, 「유럽 식민제국주의 과정에서 활용된 로마법의 uti possidetis 법리」, 『유럽연구』, 제41권 2호 (2023), 158쪽.

7) S. Pamuk, “The Black Death and the Origins of the ‘Great Divergence’ across Europe,

이러한 동기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양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선박건조기술과 항해술 등의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당시 제한적이거나 이슬람 권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럽으로 전래된 나침반(compass)·아스트롤라베(strolabe)·사분의(quadrant) 등과 같은 각양의 측량기구는 이를 촉진하는 매개로 기능하였다.

당해 요건을 내부화하여 대항해 시대 가장 먼저 항로개척에 나선 국가는 다름 아닌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은 스스로가 개척한 해상 무역로를 통해 향신료 무역으로 성장한 대항해 시대 유럽 최초의 해양 상업국으로서 선구자적 지위를 구가하였다. 이때까지(15C 중반) 향신료를 포함한 동·서양 무역은 대체로 비단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슬람계 오스만제국(Ottoman Empire, 1299-1922)이 등장하여 지중해를 장악하면서부터 비단길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물품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자 자연스레 새로운 무역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⁸⁾

당시 유럽은 이슬람 권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동방과의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까닭에 날로 커가는 동방에 대한 경제적 욕구, 자연과학을 비롯한 항해기술의 발달, 그리스도교 전파라는 종교적 열정, 국가의 강한 개척 의욕 등이 결합하면서 이슬람 권역과 그 도상에 있는 비단길을 경유하지 않고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무역로 개척에 성공하면서 향신료 무역의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유럽 내 향신료 공급은 자연히 포르투갈이 독점하게 되었다.⁹⁾

포르투갈의 선제적 향신료 독점지배권 확보에 자극받은 후발국은 포르투갈의 뒤를 이었다. 스페인의 경우 아메리카를 돌아 동아시아에 이르는 태평양 항로를 개척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포르투갈이 선점한 향신료 생산기지 지배권을 놓고 포르투갈 및 후발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기도 했다.

1300-1600,”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Vol.11, No.3 (2007), pp.289-317.

8) F. R. D. Oliveira, “The Portuguese Voyages to the Spice Islands and the First European Maps and Sketches of Southeast Asia, 1502-1554,” *Maps in History*, Vol.61 (2018), pp.7-14.

9) *Ibid*

2. 대항해 시대의 역사적 의의

유럽과 신대륙은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종교 등 다방면의 역사적 대변혁기를 거쳐 이후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시각에서 대항해 시대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대항해 시대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무역로의 발견은 무역의 중심지를 지중해와 비단길로부터 대서양으로 바뀌게 했으며 이로써 유럽과 동방 및 아메리카 대륙 간의 무역을 본격적인 활황기에 접어들게 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는 당시 유럽의 봉건영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노 계층을 붕괴시켜 상대적으로 상공업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유럽 역내에는 광대한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이른바 상업혁명(Commercial Revolution)을 견인하는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

한편 상업혁명의 결과 새로이 형성된 상권은 점차 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주도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유럽 상권의 구조적인 변화는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점차 동인도 무역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다. 이로써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는 본격화되었다.

Ⅲ. 향신료 무역의 배경과 경과

1. 향신료 무역의 배경

1) 후추의 기원과 전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향신료인 후추(black pepper)는 후추 나무의 열매로서 중국의 시각에서 서역 호(胡)나라에서 유래했다는 뜻에서 한자어로 호초(胡椒)라고도 한다. 후추는 인도 남부가 원산지로서 고기 특유

의 향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일찍부터 유럽에서는 향신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한때 프랑스 고고학계는 고대 이집트 람세스 2세(Ramesses II, B.C. 1313-1223)의 미라에서 다량의 인도산 후추 열매를 발견함으로써(1975-1976)¹⁰⁾ 예로부터 양대 대륙 간 교역의 실재를 입증하기도 했다. 나아가 당시 후추가 주검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하여 최초 인류에게 선보인 후추가 현재와 같은 향신료 용도가 아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후추는 아라비아 대상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B.C.400) 당시 유럽에는 후추가 불로장수의 강장제로 취급되어 수요가 다 분했다. 그러나 후추 원산지인 인도와의 무역이 원활하지 않았던 까닭에 수요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당시 후추의 가치는 금이나 은보다도 높았다.¹¹⁾

후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첫손에 꼽는 향신료로서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 이인로(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에서 처음 그 모습을 엿보이고 있다. 이에 후추는 고려 중기에 이미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 송(宋)과의 무역으로 전래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¹²⁾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러 후추는 매우 귀중한 수입품으로 취급되었고 그마저도 식용이 아닌 약재로 사용되었다.

2) 대항해 시대의 배경으로서 후추

대항해 시대 향신료 중에서 특히 후추 무역은 유럽 상인의 입지에 지대

10) C. Grivas, "Non-Native Herbal Materia Medica in Greek Texts of the Roman Period," *Medicina Nei Secoli: Journal of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Vol.30, No.2 (2018), pp.531-578.

11) J. Kieniewicz, "The Portuguese Factory and Trade in Pepper in Malabar during the 16th Century," *The Indian Economic & Social History Review*, Vol.6, No.1 (1969), pp.61-84.

12) 정경란, 「호초(胡椒)의 두 가지 의미, 고추와 후추」,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4), 31-43쪽.

한 영향을 미쳤다.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끝의 희망봉(Cape of Good Hope)을 돌아 인도양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한 이후 (1498)¹³⁾ 향신료는 세계 경제를 견인한 주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럽이 동양을 앞서게 한 원인이 되었다.

향신료 유입경로로서 특히 인도 벵골만(Bay of Bengal)을 지나는 해상로는 유럽 열강이 향신료 무역의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격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상업적 교류를 촉진하는 지리적 배경이 되었다. 일례로 포르투갈 신항로 개척의 주역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0-1524)는 신항로의 종착지 인도에 첫발을 내디디며 “그리스도와 향신료를 위하여”(Christos e espicarias!)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¹⁴⁾

신항로 발견 이전까지 유럽의 향신료 무역은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 상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상대적 가치로 보아 당시 중세 유럽에서 팔린 후추 열매 약 500g은 농노 1명 가치와 엇비슷했다. 후추는 오늘날 값싼 향신료이지만 중세에는 후추를 비롯한 계피(cinnamon)·정향(clove)·육두구(nutmeg)·생강(ginger) 등 향신료는 소수 특권층 또는 귀족층의 전유물이자 사치품으로 취급되어 극히 제한적으로 소비되었다. 이후 사회적 계층구조가 재편되면서 향신료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러한 기호에서 비롯된 소비 욕망은 대항해 시대를 견인하는 원인이 되었다.

요컨대 후추를 위시한 향신료는 이처럼 대륙 간 매우 귀한 물품으로 취급되었던 까닭에 유럽 열강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한 해상무역로 개척과 향신료 산지로서 식민지 쟁탈에 사활을 걸었다(16C~). 당시 포르투갈을 필두로 스페인과 신흥국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 본격적인 경쟁에 임하면서 향신료 무역의 지배권 쟁탈이 본격화되었다.

13) 최영수, 「바스코 다 가마의 생애에 관한 연구」, 『중남미연구』, 제22권 제2호 (2004), 55-56쪽.

14) M. Ilyas, “Spices in India,” *Economic Botany*, Vol.30, No.3 (1976), pp.273-280.

2. 향신료 무역의 경과

1) 대항해 시대 향신료 무역로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후추를 위시한 향신료는 끊임없는 전쟁의 화근이 되었다. 특히나 후추는 사치품이었음에도 지배계급이나 특권층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 구분 없이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후추에 대한 경제적 욕구는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대양으로 진출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후추가 처음으로 유럽에 전래된 때는 그리스 시대였는데(B.C. 5C~) 당시 그리스에서 후추는 식용이 아닌 주로 해독을 위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 현재와 같이 후추를 향미 증진을 위한 향신료로 사용한 때는 이후 로마제국 시대부터였다.¹⁵⁾

로마제국 시대 후추는 귀족이나 부유한 이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사치품이자 필수품으로서 부의 척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추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또한 그치지 않았는데 일례로 후추로부터 야기된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막대한 양의 후추를 배상금으로 물기도 했다.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해상강국 영국·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 등은 소위 후추 무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B.C. 16C~) 특히 향신료 무역의 각축장이 된 지중해에서의 패권 다툼이 어느 곳보다 치열했다. 당시 지중해는 후추의 주생산지인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교였기에 지중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했다. 일례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Isabel de Castilla, 1474-1504)이 후추 산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로 파견한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가 뜻하지 않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일화는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15) M. Jenkins, "Medicines and Spices, with Special Reference to Medieval Monastic Accounts," *Garden History*, Vol.4, No.3 (1976), pp.47-49; J. K. Nam, "Medieval European medicine and Asian spice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23, No.2 (2014), pp.319-342.

이러한 양상은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전개되었는데 이를테면 향신료가 유통되는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한 유럽과 아랍권의 마찰은 이후로도 그리스도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 피치 못할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끊임없는 충돌을 촉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추를 유럽에 소개한 주체는 아랍 상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인도에서 아덴만(Aden Bay)을 지나 홍해(Red Sea)를 거쳐 지중해를 돌아 이탈리아에 이른바 고대 향료길(Mittelalter Spice Road)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중세시대에 이르러 유럽과 아시아 간의 향신료 무역은 현재 바그다드(Baghdad)를 지나 흑해(Black Sea) 남부 해안을 거쳐 이스탄불(Istanbul)에 이르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향신료의 최종목적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였는데 이곳은 대항해 시대를 지나 중세가 끝나는 400여 년 동안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¹⁷⁾

2)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로서 베네치아

유럽의 향신료 유통을 독점했던 베네치아 시각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1492)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 개척이(1499)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항해 이후 특별한 무역 물품을 가져오지 못했으나 바스코 다 가마는 베네치아가 독점한 후추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향신료를 유럽에 소개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후추를 포함하여 중세에 이르기까지 향신료로 번영을 구가했던 베네치아는 대항해 시대의 선도국으로 나섰던 포르투갈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당시 베네치아는 동방 여러 곳에서 선적한 향신료를 반입하여 유럽 각지의 상인들에게 되팔았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대량 공급으로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다수의 무역 거점을 관리하면서 향신료 유통의 중심지 역

16) W. J. Fischel, "The Spice Trade in Mamluk Egypt: A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History of Medieval Islam,"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1, No.2 (1958), pp.157-174.

17) C. H. Wake, "The Changing Pattern of Europe's Pepper and Spice Imports, ca 1400-1700,"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8, No.2 (1979), p.361.

할을 했다.¹⁸⁾ 즉, 베네치아가 도매시장의 역할을 맡아 향신료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다른 지역의 상인은 소매상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 각지에 향신료를 공급했다.¹⁹⁾ 그 결과 당시 베네치아가 유럽에 공급한 향신료 양은 유럽 전체 공급량의 약 80%에 달했다.²⁰⁾ 당시 150만 내외의 인구를 보유했던 베네치아의 국부는 한때 약 1,600만 인구를 보유했던 오스만제국의 세입과 비슷했는데 모두가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와 그 밖에 소금을 대상에 둔 해상무역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였다.²¹⁾

당시 후추가격은 원거리에서 공급되는 무역로가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전쟁이나 작황에 따른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베네치아 향신료 무역에 큰 장애가 되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이르는 신향로를 개척한 것이 그것이었다.

3) 포르투갈의 인도양 진출과 디우 해전

인도는 후추의 산지로서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원산지인 다양한 향신료의 유통거점이었다. 포르투갈은 베네치아가 독점한 후추와 그 밖의 향신료 무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포르투갈 바스코 다 가마의 귀환 소식을 접한 베네치아는 만약 포르투갈이 이후 출항 빈도와 선단 규모를 늘려 인도를 점령하게 되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향신료 무역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급기야 베네치아의 우려대로 포르투갈이 인도양으로 진출함에 따라 베

18) F. C. Lane, "The Mediterranean Spice Trade further Evidence of Its Revival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45, No.3 (1940), pp.581-590.

19) 남종국,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과 지중해 향신료 무역」, 『해향도시문화교섭학』, 제18호 (2018), 154-155쪽.

20) C. A. Wright, "The Medieval Spice Trade and the Diffusion of the Chile," *Gastronomia*, Vol.7, No.2 (2007), pp.35-43.

21) Wake, "The Changing Pattern of Europe's Pepper and Spice Imports, ca 1400-1700," p.361.

네치아의 향신료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는 포르투갈이 인도양을 오가며 무역에 임했던 이슬람 상인을 공격한 것에서 촉발되었다. 이 사건이 화근이 되어 이른바 디우 해전(Battle of Diu)이 발발하게 되었고 (1509) 전쟁의 결과 예상대로 포르투갈이 대승함으로써 인도양의 제해권은 포르투갈에 귀속되게 되었다. 여기서 디우 해전은 동·서양이 격돌한 최초의 무역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²²⁾

전쟁의 경과로써 포르투갈 함대는 인도 서북부 디우 인근에서 인도와 이슬람 연합함대와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였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연합함대는 포르투갈을 압도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다. 연합함대가 동원한 전함은 100여 척이 넘었던 반면, 포르투갈은 고작 18척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도 5,000여 명과 1,700명으로 연합함대가 훨씬 우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연합함대는 오스만제국의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경쟁 상대였던 베네치아의 기술과 정보까지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포르투갈의 대승으로 끝났다. 포르투갈은 전함의 성능에 있어 연합함대를 압도했는데 곧 연합함대와는 달리 대부분 전함이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고 선진 선박건조기술을 내부화하여 해상에서의 기동력도 월등했다. 그 결과 전쟁 개시 후 불과 3일 만에 전쟁은 종식되었다. 당시 포르투갈 인명 손실은 30명에 불과했던 반면에 이슬람의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다.²³⁾ 포르투갈의 디우 해전 승리는 인도양 제해권이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귀속되었음을 의미했고 이로써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 공급도 포르투갈의 지배권역에 놓이게 되었다.

요컨대 포르투갈은 디우 해전에서 아랍권 세력을 완벽히 제압함으로써 인도양의 제해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후 100년 넘게 해상강국으로의 지위를 견고히 확립하였다. 디우 해전의 결과 베네치아 향신료 시장은 급기야 공급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는데 곧 베네치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향신료 공급이 전격 마비됨에 따라 베네치아는 급격한 쇠퇴일로

22) E. D. Ross, "The Portuguese in India and Arabia between 1507 and 1517,"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53, No.4 (1921), pp.545-562.

23) *Ibid*.

를 걷게 되었다.²⁴⁾

포르투갈의 향신료 수급은 다양한 유통경로를 거쳤던 베네치아에 비해 매우 단순했다. 곧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인도에서 포르투갈 선박으로 리스본(Lisbon)까지 단번에 실어 날랐다. 그 결과 원가 부담 및 유통 측면에서 베네치아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후추를 매도했다.²⁵⁾ 향신료 공급이 끊긴 베네치아는 비싼 향신료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공여지책으로 이집트 지배 세력과의 공조로 수에즈 운하를 굴착해 또다른 인도항로를 개척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이집트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못했다.²⁶⁾

4) 베네치아 향신료 시장의 회복과 쇠퇴

포르투갈의 향신료 공급망 장악은 디우 해전을 기점으로 군사력에 의존하여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은 인구 약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소국이었던 까닭에 지속적인 군사력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인구와 군사력 증강문제를 안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인도양 장악은 수년 내 오스만제국이 시리아(1516)와 이집트(1517)를 정복하고 포르투갈을 견제하면서부터 일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포르투갈은 일개 상인 집단이나 도시의 지배 세력을 제압하면서 지배권을 유지했으나 이제 는 대제국 오스만을 상대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당시 포르투갈은 군사력에서 오스만제국에 맞설 수 없었다. 오스만제국은 점차 지배영역을 넓혀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관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느슨해지면서 쇠퇴일로에 있었던 베네치아 향신료 무역은 다시금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베네치아

24) P. Pombo and H. C. Cardoso, "Shining a Spotlight on the History of Diu,"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Vol.8, No.2 (2020), pp.203-206.

25) Kieniewicz, "The Portuguese Factory and Trade in Pepper in Malabar during the 16th Century," pp.61-84.

26) F. Apellániz, "Venetian Trading Networks in the Medieval Mediterran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44, No.2 (2013), pp.157-179.

향신료 도매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점차 인도향로 독점시기에 못지않은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한동안 계속되던 베네치아의 향신료 시장지배권도 신흥 해양강국 네덜란드의 등장으로 다시금 쇠퇴하게 되었다(17C 초).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이를테면 광대한 지역이 아닌 특정한 향신료 산지인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Molucca Islands)를 점령함으로써 향신료의 거점과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때 운송업과 유통구조 혁신으로 향신료 시장을 석권했던 베네치아는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 내주면서 무역업과 해운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편에서 차선책으로 무역이 아닌 관광업과 문화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이후 유럽의 문화중심지로서 지위를 구축해 나갔다.²⁷⁾

5) 향신료 무역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쟁탈전

대항해 시대 이전까지 유럽의 향신료 수급은 전적으로 인도를 위시한 동방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가장 큰 무역품목은 향신료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르투갈이 개척한 아시아 무역로를 통해 독점적으로 공급되었다(16C). 포르투갈은 아시아 향로를 개척한 이후 이른바 카자 다 인디아(Casa da Índia)라는 무역관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향신료 무역을 관할했는데 이 관청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보고로서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와 인도네시아 향료를 선점하는 교두보 역할 그 밖에 인도·아프리카·아시아 전역에 걸친 무역 규제와 포르투갈 지배하의 영토와 식민지 그리고 생산기지의 관리 역할도 감당했다.²⁸⁾

그러나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 외의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과 이른바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함으

27) 生田滋,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아시아무역으로의 진출」, 『국제한국학연구』, 제2호 (2004), 80-81쪽.

28) Â. Barreto Xavier, “The Casa da Índia and the Emergence of a Science of Administration in the Portuguese Empire,”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Vol.22, No.5 (2018), pp.327-347.

로써²⁹⁾ 스페인에 통합되기에 이르고(1494) 그 결과 아시아 향신료 무역의 지배권은 무주공산이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네덜란드와 영국은 종전까지 포르투갈이 독점했던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먼저 네덜란드는 내부적으로 합스부르크가(Haus Habsburg)로부터 독립전쟁에 임하고 있는 중에도 안트워프(Antwerp) 상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스페인에 합병된 포르투갈의 향신료 무역로는 네덜란드 상인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윽고 네덜란드 프레데릭 아후트만(Frederick de Houtman, 1571-1627)은 불과 4척의 네덜란드 함대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자바섬(Java Island)에 도착해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후추 등 무역 물품을 싣고 귀환했다(1595).³⁰⁾ 이후 등장한 야곱 판넥(Jacob van Neck)도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의 후추를 싣고 귀국했는데(1598) 이후로 판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추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³¹⁾ 이들의 역할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영국은 이른바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급조해 설립하고 향신료 무역에 나섰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 격파에 이어 포르투갈 함대마저도 침몰시키며(1588) 대양을 제패해 나갔으나 이에 비하여 상업자본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런던의 상인은 동인도 무역을 위해 자금을 각출하고 동인도회사에 대한 국가의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599).³²⁾ 이후 영국은 동인도회사 소유 선박 4척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Sumatra Island)에 급파

29) L. A. Coben, "The Events that Led to the Treaty of Tordesillas," *Temae Inognitae*, Vol.47, No.2 (2015), pp.142-162.

30) G. Casale, "The Ottoman Administration of the Spice Trade in the Sixteenth-Century Red Sea and Persian Gulf,"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49, No.2 (2006), pp.170-198.

31) C. Pinto-Correia, *Return of the Crazy Bird: The Sad, Strange Tale of the Dodo* (Copernicus Books, 2003), pp.16-46.

32) P. Freedman, *The Medieval Spice Trade, In The Oxford Handbook of Foo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324-340.

하여 본격적인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었는데(1602) 이 선단은 이후로 꾸준히 후추를 내수시장에 공급하였고 잉여물은 유럽에 수출하기까지 했다.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뒤 네덜란드도 같은 시기 동인도회사를 설립했는데(1602) 이처럼 양국이 경쟁적으로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자 뒤이어 프랑스(1643), 덴마크(1616), 스코틀랜드(1695), 독일(1731), 스웨덴(1731) 등 유럽 열강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후발국의 동인도회사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로 남아 동아시아 향신료 무역은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영국 동인도회사보다 자본금도 10배 이상 많았고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영국 회사의 단발성 운영에 견주어 선진화된 기업 운영형태를 보였다.³³⁾ 게다가 동아시아 향신료 산지 곳곳에 상무관을 개설하여 현지 직원을 상주시키고 동시에 값이 쌀 때 향신료를 사들여 저장해 두었다가 적정한 시기에 유럽에 공급하는 등 영국과 비교할 때 회사 운영이 매우 효율적·영속적이었다는 특·장점을 보였다.³⁴⁾

6) 동아시아 향신료 무역을 독점한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에 위치한 암본섬(Ambon Island)은 향신료 산지의 중심지역이었다(16C~). 당시 유럽의 향료 소비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유럽 향신료 공급의 경쟁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저마다 암본섬에 상무관을 설치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나섰다(17C 초). 당시 암본섬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소속된 일본인 용병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덜란드 상무관 내를 염탐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1623). 그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암본섬 요새를 점거하고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면 이번 사건에는 가브리엘 타워슨(Gabriel Towerson, 1576-1623)이라는

33) J. Keay and H. T. Blethen, "The Honourable Company: A History of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History: Reviews of New Books*, Vol.24, No.1 (1995), pp.21-22.

34) 이동수, 「네덜란드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OUGHTOPIA』, Vol.37 No.1, (2022), pp.126-130.

영국인 선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자백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상무관은 암본섬과 그 일대를 수색하여 다수의 영국인과 일본인을 체포하고 심한 고문을 가하면서 당초 의도했던 대로 그들로부터 원하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재판을 통해 타워슨을 포함한 영국인 10명과 일본인 9명 그 밖에 포르투갈인 1명이 참수되었다.

당해 사건 소식을 접한 영국은 분노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암본섬 사건은 동아시아에서 향신료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양국 간의 협정(1619)을 깬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국은 네덜란드에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무력대응에 나서고자 했으나 네덜란드의 월등한 해군력에 위축되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³⁵⁾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체결한 협정은 상호 적대행위와 무역 경쟁을 중지한다는 것, 향신료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량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적정선의 판매가격을 유지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에 둔 일종의 무역 카르텔 성격이 짙었다. 당해 협정에 따라 양국은 후추를 비롯하여 그 밖의 향료를 일정 비율로 양분하여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있었으나 향료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에서는 협약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 동인도회사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이었다.³⁶⁾ 즉, 양국 정부와 현지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사건의 경과로써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총독 얀 피텔스존 코엔(Jan Pieterszoon Coen, 1587-1629)은 동아시아 향신료 무역의 독점의욕이 강했던 까닭에 양국의 협정을 무시한 채 오히려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일본·자바·말레이시아 상인들마저 모두 내쫓는 전횡을 서슴지 않았다. 코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병력을 동원하여 반다제도(Banda Islands) 일대를 점령하고(1621) 당시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영국인을 처형하거나 쫓아내 버렸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³⁷⁾

35) V. C. Loth, "Armed Incidents and Unpaid Bills: Anglo-Dutch Rivalry in the Banda Is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Modern Asian Studies*, Vol.29, No.4 (1995), pp.705-740.

36) G. Masselman, "Dutch Colonial Policy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21, No.4 (1961), pp.455-468.

그 결과 영국은 향료의 집산지에서 내몰리게 되었고 유일한 향신료 산지로서 점령하고 있었던 자바섬 인근 반탐만(Banten Bay)마저도 코엔에게 빼앗기고(1627) 끝내 말레이반도 북부로 물러나고야 말았다. 이후 네덜란드는 말라카제도 일대를 완전히 점령해 동아시아 향신료 무역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1641).

Ⅳ. 대항해 시대와 향신료 무역의 경제사적 의의와 평가

1. 대항해 시대에 관하여

대항해 시대는 약 2세기에 걸쳐 전 세계 대륙 간 항로개척과 발견 및 정복의 시대로서 곧 유럽 열강의 각축 시대였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근세에 해당하는 이 시대는 항해사적으로 원양항해가 가능했던 범선 시대(Age of Sail)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대에 유럽 열강에 의해 시도된 대규모의 무역로와 식민지 개척사는 이후로 유럽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동양을 앞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항해 시대는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화 제1의 물결(the first wave of European colonization)이라고도 불리고 있다.³⁷⁾

역사적으로 포르투갈의 카나리아제도(Canarias Islands) 탐험으로부터 촉발된(1336) 대항해 시대는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부터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본격화되었다(1498). 이때 개척된 무역로는 포르투갈이 인도양 일대에 식민정착지를 건설하고 이로써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된 분수령이 되었다.

이후 향신료 개척을 위해 원양항해에 나섰던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뜻하

37) Loth, "Armed Incidents and Unpaid Bills: Anglo-Dutch Rivalry in the Banda Is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pp.705-740.

38) T. G. Jordan, "Preadaptation and European Colonization in Rural North Americ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9, No.4 (1989), pp.489-500.

지 않게 아메리카 대륙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는데(1492-1504) 이는 세계 역사에 있어 향신료 무역로 개척에 버금가는 위대한 공적이 되었다. 대항해 시대 아메리카 대륙의 재발견은 유럽 열강의 대규모 식민지 개척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삼각무역(triangular trade)을 정착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³⁹⁾ 이를테면 원양항해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무역로 개척은 이후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해양 기반인프라로서 기능했던 사실을 예시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항해 시대는 전 대륙을 잇는 국제무역(global trade)을 가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과 정복 또한 가능하게 했으며, 대륙 간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를 견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럽 식민제도의 발전과, 보다 많은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플랜테이션 농업, 원주민 착취와 노예무역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와 이주를 유도하였다.⁴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행태들은 국제사회 내 여러 지역에서 착취와 노예제도를 고착화하고, 이에 대한 인권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항해 시대 이후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 원인이 나타났다라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⁴¹⁾

2. 향신료 무역에 관하여

동·서양을 연결하는 육상 비단길과 함께 해상으로 연계된 해상무역 네트워크로서 향신료 무역로는 열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를 유럽에 공급하는 가교역할을 감당했다. 대항해 시대 향신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초 포르투갈에 의해 개척된 향신료 무역로는 동아시아를 축으로 서로는 유럽, 동으로는 중국에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향료 중 주요 무역 물품은 인도와 동아시아 일대를 산지에 둔 후추를 위시하여 인도·스리랑

39) 김봉철, 임소라, 양수영, 박철용, 「라틴아메리카 식민정책과 근대 조약 : 1750년 마드리드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EU연구』, 제65호 (2023), 219쪽.

40) 김승일, 「역사·종교·전쟁 - 후추」, 『한맛한얼』, 제1권 제2호 (2008), 45-46쪽.

41) 김봉철, 임소라, 양수영, 박철용,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민 관련 법제 연구」, 『통합유럽연구』, 제14권 2집 (2023), 357-358쪽.

카 등의 육계와 몰루카제도의 정향 및 반다제도의 육두구 등이 있었다.

향신료 무역로는 본래 고대로부터 홍해 및 페르시아만과 인더스강을 연결하고 있었는데(B.C. 1세기) 이 항로를 따라 로마·그리스인은 인도양을 통해 향신료를 반입했다. 당시 인도의 후추가 이들 지역의 수요를 촉진한 이유는 치료제로 명성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하는 강장제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중·근동이 향신료 특히 후추의 소비권역으로 등장하기도 했다(7C). 이에 따라 한때 이슬람 세력은 후추의 원산지 인도를 후추의 나라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의 향신료 공급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원양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선박의 건조와 항해술 및 항해 전술 등에 힘입은 바 컸는데 특히 당시 동방으로부터 전수받은 항해술은 후추를 위시한 각양의 향신료를 접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방으로부터의 물품 수입 중계지로 현재 이스탄불이 등장하면서 베네치아 상인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냈다. 요컨대 유럽 역내 동방으로부터의 향신료 수급은 본연의 향신료 기능을 위한 수요뿐만 아니라 북해어업 및 축산발전을 견인하였는데 이를테면 염건어(salted-dried fish)·육류 등의 보존·악취제거·소화 촉진제 등의 용도는 향신료 공급의 급격한 증가세를 초래하였다.

중세 향신료는 경제사적으로 중국의 견직물·도자기·구리, 인도의 면포·쌀, 유럽의 모직물·은, 동아프리카의 금·상아·노예 등과의 직접적·간접적 무역대상 품목이 되어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인도·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긴요한 무역 물품으로 국제무역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14-15C).

V. 맺음말

대항해 시대에 견주어 오늘날 세계무역의 판도는 선진기술확보와 자원 입국의 기치 아래 외견상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은 보

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 policy)를 국가적 정책 기조에 두고 있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제하고 국내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를테면 관세·수입 할당제·수출 보조금·수입 허가제 등에 따른 전통적인 견해로서의 무역정책이 아니라 선진기술에 입각한 국내 산업 보호 내지는 자원 또는 식량 무기화를 통한 간접적 무역정책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비교우위의 물품은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물품은 수입하여 당사자 간 저마다의 이해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 방임해야 한다는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policy)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를 받고 있으나 날로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복잡다단한 역학관계는 어느 특정 분야의 국익에 구애됨이 없이 이들 양대 무역 정책적 기조를 시의성 있게 적절히 융합하면서 전개되고 있음을 주시할 수 있다. 일례로 오늘날 최신편에 전투기에서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산업의 핵심자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급신장하고 있는 희토류(rare-earth element)나⁴²⁾ 반복재생이 가능한 2차 전지의 니켈·리튬 등의 자원 광물을 비롯하여 무선통신이나 인공지능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등은 그 대상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지난날 향신료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열강의 무역전쟁 경과와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의 두드러진 특이점은 자원의 지배권이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원 무기화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희토류는 최신편 전투기와 휴대폰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7%와 15%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만약 희토류 반출을 금하는 경우 세계 경제환경은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42) B. Chapman, "The Geopolitics of Rare Earth Elements: Emerging Challenge for U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s," *Journal of Self-Governance and Management Economics*, Vol.6, No.2 (2018), pp.50-91.

자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³⁾ 이러한 예견 가능성은 최근 일본의 불화 수소 등의 반출금지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실례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국제정세의 눈에 띄는 역학관계로서 이른바 G2 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구도는 이러한 선진기술확보와 자원 보호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과 기술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향신료와 같이 어느 일방의 독점이나 지배만으로는 경제적 실질을 담보할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보완 및 결합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로부터 그 실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적절한 혼합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무역환경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열강의 치열한 각축전을 초래한 단초가 되었던 해상무역로와 향신료에 대한 지배권 쟁탈은 소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늘날 자원과 기술의 시의적절한 융합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가 외교의 목적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국가정책적 기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본 고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3) X. Pang, D. Li, and A. Peng, "Application of Rare-Earth Elements in the Agriculture of China and Its Environmental Behavior in Soil,"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Vol.9 (2002), pp.143-148.

참고문헌

- 김봉철, 「유럽 식민제국주의 과정에서 활용된 로마법의 *uti possidetis* 법리」, 『유럽연구』, 제41권 2호 (2023).
- 김봉철, 임소라, 양수영, 박철용, 「라틴아메리카 식민정책과 근대 조약 : 1750년 마드리드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EU연구』, 제65호 (2023).
- 김봉철, 임소라, 양수영, 박철용,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원주민 관련 법제 연구」, 『통합유럽연구』, 제14권 2집 (2023).
- 김승일, 「역사.종교.전쟁 - 후추」, 『한맛한얼』, 제1권 제2호 (2008).
- 남종국,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과 지중해 향신료 무역」,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8호 (2018).
- 이동수, 「네덜란드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OUGHTOPIA』, Vol.37, No.1 (2022).
- 정경란, 「호초(胡椒)의 두 가지 의미, 고추와 후추」,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4).
- 최영수, 「바스코 다 가마의 생애에 관한 연구」, 『중남미연구』, 제22권 제2호 (2004).
- 生田滋,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아시아무역으로의 진출」, 『국제한국학연구』, 제2호 (2004).
- Ai, Likun, Juzhi Hou, Haichao Xie, Yanbo Yu, and Fahu Chen, “Association for Trans-Eurasia Exchange and Silk-Road Civilization Development,” *EGU General Assembly 2023, Vienna, Austria, April 24-28, 2023*, EGU23-5233 (2023).
- Apellániz, F., “Venetian Trading Networks in the Medieval Mediterran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44, No.2 (2013).
- Barreto Xavier, Â., “The Casa da Índia and the Emergence of a Science of Administration in the Portuguese Empire”,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 Vol.22, No.5 (2018).
- Casale, G., "The Ottoman Administration of the Spice Trade in the Sixteenth-Century Red Sea and Persian Gulf,"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49, No.2 (2006).
- Chapman, B., "The Geopolitics of Rare Earth Elements: Emerging Challenge for U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s", *Journal of Self-Governance and Management Economics*, Vol.6, No.2 (2018).
- Coben, L. A., "The Events that Led to the Treaty of Tordesillas," *Terrae Inognitae*, Vol.47, No.2 (2015).
- Coletta, N. L., "The Spice Route: A History," *Food, Culture & Society*, Vol.11, No.1 (2008).
- Fischel, W. J., "The Spice Trade in Mamluk Egypt: A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History of Medieval Islam,"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1, No.2 (1958).
- Freedman, P., *The Medieval Spice Trade, In The Oxford Handbook of Foo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Grivas, C., "Non-Native Herbal Materia Medica in Greek Texts of the Roman Period," *Medicina Nei Secoli: Journal of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Vol.30, No.2 (2018).
- Ilyas, M., "Spices in India," *Economic Botany*, Vol.30, No.3 (1976).
- Jenkins, M., "Medicines and Spices, with Special Reference to Medieval Monastic Accounts," *Garden History*, Vol.4, No.3 (1976).
- Jordan, T. G., "Preadaptation and European Colonization in Rural North Americ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79, No.4 (1989).
- Keay, J. and H. T. Blethen, "The Honourable Company: A History of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History: Reviews of New Books*, Vol.24, No.1 (1995).
- Kieniewicz, J., "The Portuguese Factory and Trade in Pepper in Malabar during

- the 16th Century,” *The Indian Economic & Social History Review*, Vol.6, No.1 (1969).
- Lane, F. C., “The Mediterranean Spice Trade further Evidence of Its Revival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45, No.3 (1940).
- Loth, V. C., “Armed Incidents and Unpaid Bills: Anglo-Dutch Rivalry in the Banda Is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Modern Asian Studies*, Vol.29, No.4 (1995).
- Mancall, P. C., “The Age of Discovery,”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26, No.1 (1998).
- Masselman, G., “Dutch Colonial Policy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21, No.4 (1961).
- Mishra, R. K., “The ‘Silk Road’: Historical Perspectives and Modern Constructions,” *Indian Historical Review*, Vol.47, No.1 (2020).
- Nam, J. K., “Medieval European medicine and Asian spice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23, No.2 (2014).
- Oliveira, F. R. D., “The Portuguese Voyages to the Spice Islands and the First European Maps and Sketches of Southeast Asia, 1502-1554,” *Maps in History*, Vol.61 (2018).
- Pamuk, S., “The Black Death and the Origins of the ‘Great Divergence’ across Europe, 1300–1600,”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Vol.11, No.3 (2007).
- Pang, X., D. Li, and A. Peng, “Application of Rare-Earth Elements in the Agriculture of China and Its Environmental Behavior in Soil,”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Vol.9 (2002).
- Pinto-Correia, C., *Return of the Crazy Bird: The Sad, Strange Tale of the Dodo* (Copernicus Books, 2003).
- Pombo, P. and H. C. Cardoso, “Shining a Spotlight on the History of Diu,”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Vol.8, No.2 (2020).
- Ross, E. D., “The Portuguese in India and Arabia between 1507 and 1517”,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53, No.4 (1921).

Scammell, G. V., "European Seamanship in the Great Age of Discovery," *The Mariner's Mirror*, Vol.68, No.4 (1982).

Silin, Yakov, Larisa Kapustina, Italo Trevisan, and Andrei Drevaev, "The Silk Road Economic Belt: Balance of Interests,"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Vol.6, No.3 (2018).

Wake, C. H., "The Changing Pattern of Europe's Pepper and Spice Imports, ca 1400-1700,"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8, No.2 (1979).

Wright, C. A., "The Medieval Spice Trade and the Diffusion of the Chile," *Gastronomia*, Vol.7, No.2 (2007).

〈Abstract〉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Spice Trade of European Powers during the Age of the Great Voyage

Chongseok Shim* · Ho Kim**

This study focused on the spice trade that originated from the Age of Discovery.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purpose was to present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today's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national policy trade trends. Compared to the Age of Exploration, today's international trade focuses on securing advanced technology and protecting resources and outwardly promotes free trade, but in reality, protectionism is the basis of national policy. Like spice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technology means that economic benefits cannot be secured through monopoly or domination by one party alone, but can be secured from added value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r combination. This perspective is the main cause of today'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which is developing as an appropriate mixture of protectionism and free trade policy. The struggle for control over trade routes and spices, which was the cause of the fierce wars among European countries, went beyond the preservation of commercial interests to meet consumption demands, and now the added value created by the fusion of resources and technology is not only the purpose of diplomacy, but also the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D. (Law/Business Administration) (cyrus@daeg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ersity, S.J.D. (hufsho@kmu.ac.kr)

top priority. This suggests that it should become a national policy.

Keywords: Age of the Great Voyage, Spice Trade, International Trade, Free Trade
Policy, Protectionism

원고접수일: 2023. 09. 2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 확정일: 2023. 11. 11.